



Built to Lead

즉시 배포용: 2016년 4월 15일

주지사 **ANDREW M. CUOMO**

**CUOMO** 주지사, 도로의 10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한 ‘빈 걸상 방지’ 단속 및 교육 캠페인 발표

*뉴욕주는 법집행 기관 및 지역 학교들과 제휴하여 학년말 댄스 파티 및 졸업 시즌 동안 하이웨이 위험 인식을 제고하는 캠페인 실시*

Andrew M. Cuomo 지사는 오늘 학년말 댄스 파티 및 졸업 시즌 동안 하이웨이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“빈 걸상 방지” 10대 운전 안전 교육 및 단속 캠페인을 출범시켰습니다. 주 및 지역 법집행 기관들은 4월 18일 월요일부터 4월 22일 금요일까지 시행될 한 주간의 다기관 캠페인에 참여할 것입니다.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도 학교 관리자, 지역 교통 안전 파트너 및 기타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이 이번 시즌 프롬 및 졸업에서 빈 걸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인식을 제고할 것을 당부합니다.

“교통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는 의미 없는 비극을 방지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”라고 **Cuomo** 지사는 말했습니다. “빈 걸상 캠페인에 대한 입소문을 퍼뜨림으로써 우리는 충돌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방지하여 뉴욕주의 모든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.”

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는 금년의 캠페인을 4월 15일 Camillus의 West Genesee 고등학교 행사로 시작하였습니다. 100여명의 학생들과 자동차 사고로 10대 아들을 잃은 모친을 포함한 여러 연사들이 참여하였습니다.

주 및 지역 법집행 기관들은 캠페인 기간 동안 지역 고등학교 인근에 주재원을 늘릴 것이며, 경찰관들은 젊은이들에게 안전하고 통제된 방식으로 각종 교통 상황에서 중대한 일이 닥쳤을 때 여유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고안된 단계적 운전 면허(GDL) 법의 위반에 대하여 상기시켜 줄 것이 두려워됩니다. 뉴욕주 보건부는 [Upstate New York](#), [뉴욕시](#) 및 [Long Island](#)에서 GDL과 관련하여 GTSC의 후원을 받아 사법집행기관 및 기타 당국에 대한 포켓 가이드를 제작했습니다.

이 캠페인은 한 주 동안 특정 위반을 겨냥할 것이며, 또한 기타 모든 차량 및 교통 법률을 시행할 것입니다. 목표 일자 는 다음과 같습니다:

- 2016년 4월 18일 월요일 – 학교 구역 과속
- 2016년 4월 19일 화요일 – 시트벨트 및 아동 제약 장치

- 2016년 4월 20일 수요일 - 휴대폰 사용 및 문자 발송
- 2016년 4월 21일 목요일 - [안전 정지 작전](#)/스쿨버스 안전 홍보
- 2016년 4월 22일 금요일 - 미성년 음주 및 부주의 운전

관할 구역 내 고등학교에 학교 경찰관(SRO) 또는 주재원이 있는 법집행 기관들도 이번 주와 프롬 및 졸업 시즌 동안 아웃리치를 실시할 것이 장려됩니다.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빈 결상 방지 [홍보 포스터](#)가 학교의 학생들이 많이 붐비는 장소에 게시될 것입니다. 학교 관리자는 이메일([Todd.Engwer@dmv.ny.gov](mailto:Todd.Engwer@dmv.ny.gov))을 통해 GTSC의 Todd Engwer에게 연락하여 무료 포스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**차량부(DMV) 차장 겸 GTSC 의장 대행 Terri Ega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:** “거의 매년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들은 교통 사고에서 고등학생들의 비극적 사망을 경험합니다. 우리는 모든 10대가 졸업일에 자기 의자에 있도록 특히 프롬 및 졸업 시즌 동안의 교통사고를 없애기 원합니다. 자녀의 귀가를 기다리는 부모에게 저 겁나는 문 노크를 경찰관들이 하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는 ‘빈 결상 방지’ 캠페인으로 우리의 노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. 저는 10대들이 도로에서 불필요한 비극을 피하여 안전하고 건전하며 행복한 학년말을 맞기를 바랍니다.”

**뉴욕주 경찰청장 Joseph A. D’Amic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:** “이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10대들이 그들 앞에 놓인 프롬, 졸업을 즐긴 다음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. 운전할 때는 안전띠를 매고, 속도를 줄이며, 휴대폰을 치우세요. 이 몇 가지 조치는 모두를 위해 하이웨이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이 프롬 시즌 동안 비극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”

금년의 빈 결상 방지 캠페인은 작년 이니셔티브의 성공을 토대로 GTSC와 전주 학교들 사이의 파트너십의 결과인 코치 케어 캠페인과 함께 합니다. Cuomo 지사가 2015년 10월에 처음 [발표한](#) 코치 케어는 코치들이 공개적으로 학생 선수들과 함께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안전 운전에 대해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

[질병통제예방센터](#)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는 미국 청소년 사망의 주요 원인입니다. 교통안전관리연구소는 뉴욕주의 다음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:

-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뉴욕주의 모든 자동차 사망자의 11~13%는 운전자가 16-20세인 [사고](#)에서 발생하였습니다.
- 뉴욕주의 사망 및 부상 [사고](#)에 연루된 16~17세 운전자들은 다른 모든 사망 및 부상 사고의 운전자들보다 동승객과 함께 운전할 가능성이 더 많았습니다(2014년의 경우 43% 대 29%).
- 2013년 [데이터](#)에 의하면 경찰에 신고된 전주 사망 및 부상 사고에서 16세~20세 운전자들은 복수의 기여 요인(운전자 미숙, 불안전 속도, 너무 가까이 따르기, 양보 운전 미준수 및 운전자 부주의 포함)을 가질 가능성이 모든 운전자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.

추가 자료를 위하여 교사, 코치 및 교내 담당자는 [여기를 클릭](#) 할 수 있습니다. 젊은 운전자들은 DMV 자료를 위하여 [여기를 클릭](#) 할 수 있습니다.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: [www.governor.ny.gov](http://www.governor.ny.gov)  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[press.office@exec.ny.gov](mailto:press.office@exec.ny.gov) | 518.474.8418